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군포시를 중심으로*

장여옥** · 조미영***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에게 지원서비스 및 상담을 진행하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위기청소년의 경험을 근거로 지원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포시에서 청소년 보호서비스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현장전문가 6명을 선정하여 2020년 10월 27일에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한 인터뷰 질문은 연구진간 논의를 거쳐 도출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중심개념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대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 11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첫째, '변화된 환경에서 발견된 청소년 위기의 심화'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지친 청소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청소년과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부모-자녀 갈등이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실제적 도움'은 내 방이 없는 집에서 온라인 학습하기와 관련한 지원과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이다. 셋째, '경제적 위기 및 가정해체 극복에 필요한 자립 지원'에서는 위기 상황에 맞서 진로 준비하기와 원가정과 분리를 통한 나를 찾기로 나타났다. 넷째,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의 협력 및 지원'으로는 따로 또 같은 현장전문가와 교사에 대한 협력 지원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 함께 모여서 협력하기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과 청소년지원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위기청소년, 코로나19, 현장전문가,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2020년 「군포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아동청소년전공 초빙교수

***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겸임교수, 교신저자, chomy@mjc.ac.kr

I. 서론

빠른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가치관 등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사회적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문제나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먼저,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방과 후 홀로 방치되기 쉬운 돌봄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나 감독을 받지 못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기도 한다. 가족해체 및 가족갈등은 청소년 비행이나 가출의 원인이며, 위기청소년의 58.4%는 가정 안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가출 생애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의 66.3%는 가족갈등을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다(황여정, 이정민, 김수혜, 2020). 또한 위기청소년은 우울감(24.3%), 자해 경험(30.5%)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황여정 외, 2020).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청소년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개인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이유와 함께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강석영, 김동민, 하창순, 2009). Horowitz (1987)은 인간의 타고난 특성과 환경적 질이 상호작용한다는 발달모형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황순길 외, 2016: 7에서 재인용). 즉, 예측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취약계층이나 위기청소년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감, 일상의 지루함, 또래 및 교사와의 직접적인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수록 낮에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고, 보호자 없이 낮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은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이 높았다(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이처럼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은 단일하지 않고 복잡하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20; 황순길 외, 2016),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성인기 이행에도 어려움을 경험하므로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위기청소년의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관련법에 근거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복지 정책 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및 사업으로는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가출청소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위기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현재는 연구가 중단된 상태이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군포시는 한부모가족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학교폭력 피해 경험, 가출 경험 등이 높은 지역이므로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의 요구가 크다(전경숙, 노자은, 송효준, 최수현, 2020). 또한 위기상황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보호·복지 서비스나 지원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즉각적·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들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 대상의 서비스와 지원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1983년 미국의 국가위원회 보고서에서 미국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천정웅, 2017). 1995년 OECD에서는 위기청소년을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이라 하였다(Evans, 2005). 강석영 외(2009)는 위기청소년을 결손가정, 경제적 문제, 학교폭력 피해, 유해환경 등과 같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운 위험 상황을 경험하는 청소년

이라 하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4항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학자마다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으로 국가 및 사회차원의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운 청소년을 의미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기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인 청소년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유관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정신건강문제, 학교폭력피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보호·교육·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0). 즉, 1388 청소년 전화, 문자, 사이버상담, 경찰서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 또는 일시구조 및 사례관정회의를 거쳐서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이용 청소년은 2019년 기준 168,377명이었고, 3,279,408회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이루어졌다(여성가족부, 2020). 또한 학교밖 청소년이 사회적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센터는 2020년 기준 219개소가 운영되었고, 2019년 연계인원은 47,358명이었다(여성가족부, 2020). 가출 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2020년 기준 133개소가 운영되었고, 2019년 청소년쉼터 입소인원은 32,402명이었다(여성가족부, 2020).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이처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 및 대응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이 상이하서 다른 위기행동을 보인다. 위기청소년이 처한 개인적, 가정적 및 환경적 상황에 따라 위기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강석영

외, 2009). 위험요인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다(Garmezy, 1990; Pollard, Hawkins & Arthur, 1999). 위험요인에는 청소년의 우울, 충동성, 공격성(강혜원, 김영희, 2011; 이혜순, 옥지원, 2012), 부모와의 갈등, 학대 및 방임(이상현, 윤명성, 2007; 진혜민, 배성우, 2012),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낮은 학업성적, 또래의 비행(모경환, 이미리, 김명정, 2020; 지승희, 이은경, 이지은, 최수미, 정찬석, 2001), 지역사회에 낮은 사회적 유대감, 범죄 환경(주영선, 정익중, 2019) 등이 있다. 반면에 보호요인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적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감소시켜 청소년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권재환, 이은희, 2006; Garmezy, 1985). 보호요인에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황순길, 김동민, 김화연, 2015),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 한상철, 2016), 교사 및 또래의 지지(이준기 외, 2012; Arnett, 2000),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독 및 지지(강석영 외, 2009)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는 위기청소년의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위기청소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의 인식, 어려움, 직무나 소진 경험이 연구되어(김동일, 현은정, 우예영, 박준영, 2020; 박경례, 박재연, 2020), 이들의 근무 여건, 처우개선, 제도 및 정책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의 서비스와 지원을 위한 현장전문가 관점에서의 지원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 종사하는 현장전문가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목격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역 자원이나 유관기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의 다양한 경험은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자주 접하게 되는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현황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청소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현장전문가로서 청소년 일상의 현장에서 경험한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실제와 이를 근거로 한 소견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후에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청소년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군포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학교에서 상담 및 복지지원, 위기관리, 자립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포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이를 근거로 군포시로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장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추천인 중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현장전문가를 선별하여 6명으로 연구 참여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석한 참여자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성별	기관	경력
A1	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년 이상
A2	여	△△지역아동센터	10년 이상
A3	남	□□□중장기청소년쉼터	10년 이상
A4	여	●●자립지원관	5년 이상
A5	여	▲▲중학교	10년 이상
A6	남	○○○꿈드림센터	5년 이상

2.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가정 및 학교 문제, 사회 부적응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에게 지원서비스 및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전문가들이 경험한 청소년의 위기상황과 지원방안을 탐색하고자 초점집단면담기법을 사

용하였다. 초점집단면담조사(FGI)는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토론 집단을 구성한 후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에 대하여 참여자들 간의 자유로운 대화를 관찰 및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는 질적 조사연구 방법이다(고기숙, 이지숙, 유동환, 윤용희, 2019). 이는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논의 주제와 관련한 참여자들의 경험과 그 경험 속 상황 및 감정 등을 심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 수준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즉, 초점집단면담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윤숙희, 최선남, 2015). 따라서 잘 드러나지 않는 위기청소년의 독특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근거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연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초점집단면담의 구성원 수는 연구 주제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나, 일반적으로 6~8명으로 구성된다(신경림, 조명옥, 양진아, 2005).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담은 2020년 10월 27일에 수리산 상상마을 내 회의실에서 주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로 구성된 연구진 2인이 참석하여 120분간 진행되었다. 인터뷰 실시 전 본 연구에서 정의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은 Krueger와 Casey(2009)가 제시한 과정을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면담 과정에서 기록한 내용과 녹취록을 전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기록한 내용을 검토하고 녹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으며 참여자들이 제시한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기록한 내용과 전사된 내용과의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반복적으로 정독하여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표시하고 개념을 추출하였다. Creswell(1998)이 제시한 주제별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중심 주제를 찾았고, 중심 주제를 근거로 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소주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중심개념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개념들 간 연결성과 차이를 검토하면서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표 2

초점집단면담 질문

구분	질문
도입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경험은?
주요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소년의 위기는? •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학교, 지역사회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은? • 위기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 실제로 위기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원 서비스는? •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3. 연구의 타당성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분석과정을 공동연구자와 교차로 검증하였으며,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 및 이견 등을 질문하면서 참여자들이 균등하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경험 및 생각들을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연구 목적과 실시 방법, 개인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연구 참여를 중단할 권리와 함께 연구의 자발적 참여 등을 명시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을 녹취한 내용에는 연구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기호화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지원 및 상담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중심 개념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4개의 대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 11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위기청소년 대상 경험과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변화된 환경에서 발견된 청소년 위기의 심화’,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실제적 도움’, ‘경제적 위기 및 가정해체 극복에 필요한 자립 지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의 협력 및 지원’이 논의되었다.

표 3

중심 주제와 하위 주제

의미단위	하위주제	주제
자해, 우울, 자살, 심리적 문제	마음이 아프고 지친 청소년	변화된 환경에서 발견된 청소년 위기의 심화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정, 정서적 기능 약화, 가정폭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청소년	
목표설정의 어려움, 짧은 지속력, 미래 준비의 어려움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부모-자녀 갈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실제적 도움
코로나19, 가정의 경제적 위기, 부모와의 갈등	내 방이 없는 집에서 온라인 학습하기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수업 참여, 인터넷 연결 불안정, 교사에게 꾸중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경제적 위기 및 가정해체 극복에 필요한 자립 지원
학습공간이 없음, 집중하기 어려움	따로 또 같은 현장전문가와 교사	
전화상담, 지속적인 관심, 심리적 지원, 물질적 도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 함께 모여서 협력하기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의 협력 및 지원
검정고시, 자격증, 일자리 연계, 실질적인 이익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음, 가족과 연락하기 싫음, 가족과 분리 원함		
역할, 함께하기, 지역 협력, 통로		
지역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협력체계, 멘토링		

1. 변화된 환경에서 발견된 청소년 위기의 심화

1) 마음이 아프고 지친 청소년

청소년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을 경험한 현장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은 먼저 정신건강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들이다. 특히, 자해 및 자살 또는 우울감 등과 같은 정신 건강과 관련한 문제가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품행과 관련한 요인이 주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일정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요인이 청소년의 위기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 중에서 위기문제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정신건강문제가 계속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십년 전까지만 해도 품행문제였는데 근 십년을 주기로 해서 지금 계속 변화하는 양상은 정신건강 문제이고, 정신건강 중에서 자해나 우울이나 자살행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더 우리 기관의 업무 영역에서 많이 잡히는데...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가정폭력이나 학대상황들 또는 어떤 트라우마 경험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A1)

저도 청소년의 자해문제를 봤어요.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지금은 자살, 자해 아니면 심리적이거나 정서적 문제가 있고, 정신과 상담 같은 것이 연계될 필요가 있어요.(A3)

다음으로 위기청소년은 대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인 어려움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주의 깊은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성장과정에서 받게 되는 정서적 결핍 및 학대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서적 취약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초기개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가정의 경제적 취약의 경우 공적 지원체계가 들어가 있는 곳은 그 문제들을 우리가 알면서 어떻게든 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잠재워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원 구조 속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수면 아래에서 가정의 정서적 기능이 어려운 부분 속에서 아이들의 사건들이 크게 터지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정서적인 돌봄 기능이 그렇게 취약하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엔 다양한 문제 등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A1)

가정 내 폭력이 이루어진다거나 가정적으로 좀 어렵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잘 못 받는 친구들은 저학년 때부터 문제행동을 좀 보여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아동은 이제 1년에 35회기 정도 되는 상담을 계속 연계를 해서 2-3년 꾸준히 받게 하고 그리고 거의 오랫동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 같아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보통 그러면 잘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또 힘든 친구들도 있더라고요.(A2)

2)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위기청소년들은 대체로 지속력이 부족하고 목표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진로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즉, 지속력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한 일보다는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게 됨으로써 어떤 분야의 직업인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지속력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안정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 지속하는 것이 어렵고... 프로그램도 참여한다고 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반청소년들보다 좀 지속력이 짧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표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도 없고, 계속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채 이상만 품고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루뭉술한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A6)

배달이나 약간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그냥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부러 하고 뭔가 목표를 잡아도 그게 이어지지 않고, 이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빨리 포기해버리고... 돈 벌 수 있는 배달로 가고. 저희가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나 대학입시 같이 미래를 준비하려는 생각보다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큰 거 같아서 지속력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A4)

3)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부모-자녀 갈등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가정의 경제적 악화를 청소년의 위기로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보호자의 보호 및 지도가 과거보다 더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의 실직이나 직업 변경 등의 어려움은 가정의 경제적 악화로 연결되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보호자가 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은 결국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집에 있게 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즉, 가정의 경제적 악화로 인한 위기는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인지 유독 경제 상황에 변동이 커서 보호자의 가정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아이들은 계속 학기 초에 1학기 동안에는 거의 가정에서만 있었던 상황인데, 부모님의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 지방에 계시면서 아이들만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부모님과 좋지 않은 갈등 상황인데 계속 집에 머물러야 돼서 그게 어떤 문제 상황을 일으키는 애들로 이루어져 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올해 좀 유난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A5)

2.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실제적 도움

1) 내 방이 없는 집에서 온라인 학습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원격으로 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원격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은 가정형편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다. 위기청소년들은 노트북이나 컴퓨터 없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업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선생님의 지적을 받고 있었다. 또한 가정 형편 상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보였다. 보호자나 선생님의 관리 및 감독 없이 혼자서 학습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위기청소년은 집중력 저하 등 학습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이 온라인 학습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디지털 기기 대여 및 보급 등의 교육여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가정 내 학습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더 선호하는 친구도 있지만 가정의 배경이 안 되어서 가정에서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참여하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자기 방 안에서 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방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A6)

온라인 수업이 힘들다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컴퓨터가 없어서 좀 수업 때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는 청소년들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해요.(A5)

2)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시급한 지원으로는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도움이라고 언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청소년들에게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기존의 자기개발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더 선호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청소년들과 전화 통화를 올해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본인들의 어려운 부분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측불허의 한 해를 보내면서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저희 학교 밖 아

이들은 예전에는 자기개발 프로그램과 같이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실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원해요. 경제적 지원 같은거요.(A6)

청소년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 특히,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외식비 지원이나 도시락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A1)

3. 경제적 위기 및 가정해체 극복에 필요한 자립 지원

1) 위기상황에 맞서 진로 준비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위기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위기상황에 맞서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격증 취득이나 다양한 진로 및 취업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취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본인한테 실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아이들이 하려고 해요. 경제적 측면이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검정고시 학습하는 부분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이라던가,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등 이런 식의 실제적인 도움. 내가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광고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A6)

친구들에게 검정고시 준비나 취미나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A3)

2) 원가정과 분리를 통한 나를 찾기

연구 참여자들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나 폭력을 경험하는 경

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폭력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장과정 속에서 지속되거나 또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에 원가정과의 분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폭력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확실하게 끊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성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계속 (가족에게) 연락이 온다던지...그런 부분들은 아예 가족과 분리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야 애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A4)

4.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의 협력 및 지원

1) 따로 또 같은 현장전문가와 교사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전문가는 교사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활동, 복지 및 보호 영역에서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관단위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협조체계 안에서 교사와 현장전문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정되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

전문상담교사 선생님을 만나보면 학교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지역사회 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본인들은 굉장히 원하지만 허락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 여력은 부족하고. 이런 건 교육청 단위에서 미리 담당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통로를 만들어 줘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인지는 하고 있으나 너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A1)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지회들(지역아동센터)이 함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촘촘하게 관리를 하는 편인데 그러지 못한 학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A2)

2)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 함께 모여서 협력하기

군포시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원네트워크와 같은 전문가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문가협의체를 통하여 서로 관계성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제시한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관계망은 위기청소년에게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는 현장전문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하면서 제일 좀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년지원 네트워크라고 매달 모여서 최근 아이들의 이슈가 뭔지 이런 것도 나누고 지역 간의 뭐 기관별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도 나눠서 바로바로 협의가 넘나들 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A5)

인적 네트워크는 짙은 편인 것 같거든요. 교육복지사가 들어가 있든 전문상담복지사가 들어가 있든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든 아니면 학교 상담자가 들어가 있든 어쨌든 거기 안에서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다른데 비해서는 잘 돼 있는 편이에요.(A1)

청지넷도 마찬가지로 연합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있으면서 사군 컨설팅도 다니고,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초기세팅 할 때는 사군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협력체계가 굉장히 좀 촘촘하게 돼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구요.(A3)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언급되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적서비스 기관의 경우, 주무부처의 지침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고 적극적인 대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위기청소년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민간단체의 청소년 지원 활동은 공공기관보다는 자유롭게 청소년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다 문 닫고, 기관 다 문 닫아 버리니까 아이들을 볼 수가 없고 근데 아이들은 여전히 안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에서는 계속 움직여 주셨거든요. 학습 멘토링, 멘토 발굴을 해서 계속 아이들의 기초학습이라던가... ‘꽃이 되었다’라는 기관이나 ‘형짚 원숭이’라는 기관이나 단체들... 그런 곳에서는 계속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애들 다 놓쳤을 것 같아요.(A5)

공적 지원 체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참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민간단체들은 그럴 때 조금 지켜줘서 그게 이번에 정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는 형짚원숭이, 키다리 아저씨사업 등이 있어요.(A1)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걱정된 대응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에게 슈퍼바이저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기청소년을 대응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은 다양한 사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례 중에는 위기가 매우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을 만나게 될 때, 현장전문가들은 동료들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적 부담과 업무만 가중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청소년의 사례를 통하여 번아웃 증후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

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장전문가들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위기대응 시스템의 운영 여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이 주는 것 보다 좀 쉬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은 좀 했는데... 전문가가 진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보호망을 잘 만들어 줘야... 너무 어려운 애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구한테 대화하면 좋겠는지를 동료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곤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나의 어떤 그런 시수, 슈퍼바 이저 이런 사람이 조금 더 연계되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A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대상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담면담을 실시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심리적 불안정 및 경제적 어려움, 심각한 교육격차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위기청소년의 정서적 및 심리적 어려움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속적으로 위기청소년에게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해 및 자살을 경험하고 우울을 느끼고 있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위기를 더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위기를 덜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위기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 및 미래를 위하여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쉽고 빠르게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함으로써 직업과 연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가 이직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제대로 돌봄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들이 목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기청소년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한상철, 2016)가 있으며,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이나 낮은 가족 간의

유대감, 가정불화(유성경, 2000) 등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 개인적 정서 및 심리적 요인들은 위기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요인(구본용, 유제민, 2003; 유성경, 2000)이므로 이들의 긍정적 가치관 및 자아존중감 형성, 자기유능감 등을 발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및 정서적 지지, 높은 가족응집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실제적 도움으로는 온라인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기기 구축 및 가정 내 학습 환경의 개선이 었다. 온라인 수업 시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버퍼링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여 수업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가정에는 스마트폰 이외에 온라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학업을 할 수 없어서 학습능력이나 학업 흥미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및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한 관심과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부정적인 심리적 감정이 증가하고,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성남시청소년재단, 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와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상담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학습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지원이 시급하고, 예상치 못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부모나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성남시청소년재단, 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셋째,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가정의 경제적 위기와 가정해체 등의 위기를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지원과 함께 검정고시 취득, 자격증 관련 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원가정 안에서의 성폭력이나 신체적 학대 및 폭력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원가정과 분리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위기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부모와의

높은 갈등과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진혜민, 배성우, 201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 가정과 분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 상담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는 학교 교사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조기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전문가협의체 및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청소년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화된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따라 가중되는 현장전문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가정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가정을 살펴보면 경제적 취약과 정서적 취약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의 경우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 지자체 단위나 정부 단위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의 지원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 반면 정서적 취약가정은 그 현상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망이 적은 부모일 경우 도움을 요청할 곳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정서적 취약가정을 발굴하고 예상되는 정서적 취약가정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및 추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취약가정에 존재하고 있고, 취약가정은 경제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 어려움은 대체적으로 부모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또는 정서적 열악함으로 무기력한 경우에도 발생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립은 청소년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이 가정 내 위기상황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므로 위기청소년 대응에 있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초점집단

면담에서 발견된 위기청소년의 주요한 특징은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내는 지속력이 부족하고 목표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며, 이러한 특징은 결과적으로 장기간 교육 훈련이 필요한 직업보다는 쉽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선호하게 한다. 따라서 진로직업체험이나 인턴십을 활용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 자립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은 기관과의 협업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일자리 현황이나 연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나 청소년을 필요로 하는 직군 등을 조사·분석하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원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미 군포시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지원네트워크, 아이보듬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소년을 마을에서 키워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협력시스템을 통해서 군포시는 위기청소년 사례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군포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 효과성뿐만 아니라 장기적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 기관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조직에서 주도하는 지원협의체가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관련 자원들이 공동의 커먼즈(common)를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상호 주체가 되어 각자가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지원협의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지원협의체와 학교, 민간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 대응 방안에서 형곶원숭이 운동본부, 키다리아저씨사업 등 다양한 민간단체의 활동 내용이 제시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경우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고자 시작한 ‘형곶원숭이 운동본부’ 등의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시한 민간단체 활동은 공공시설 및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의 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관련 업무 교사가 청소년지원협의체와 연계될 수 있다면 위기청소년의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응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현장전문가의 적절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기대응의 학문적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의 슈퍼바이저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군포시에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출된 결과를 교차 검토하고 면담자들과 공유 및 검토를 거쳤지만 질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 및 편견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접 위기청소년을 매일 만나고 상담하며 위기청소년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시한 연구 결과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위기청소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석영, 김동민, 하창순 (200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강혜원, 김영희 (2011). 생의 의미수준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5(2), 27-50.
- 고기숙, 이지숙, 유동환, 윤용희 (2019). 청소년의 분노 표현 및 대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445-462. doi:10.5392/JKCA.2019.19.01.445
- 구본용, 유제민 (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 권재환, 이은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김동일, 현은정, 우예영, 박준영 (2020). 청소년 고위기 상황 및 효과적 개입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담당자의 인식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8(2), 281-303. doi:10.35151/kyci.2020.28.2.013
- 모경환, 이미리, 김명정 (2020). **청소년 문제와 보호**. 서울: 교육과학사.
- 박경례, 박재연 (2020).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사의 직무와 소진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3), 171-202. doi:10.21509/KJYS.2020.03.27.3.171
- 성남시청소년재단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법적 감염병 확산에 따른 청소년 활동의 대안과 전략. **이슈페이퍼**, 1, 1-14.
- 신경림, 조명옥, 양진아 (2005).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유성경 (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 81-106.
- 윤숙희, 최선남 (2015). 청소년 미술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미술치료 연구**, 22(2), 409-432. doi:10.35594/kata.2015.22.2.007
- 이상현, 윤명성 (2007). 위기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4(1), 89-118.
-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수원: 경기도 교육연구원.

- 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 생태체계학적 접근에 근거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소년보호연구**, 18, 55-83.
- 이혜순, 옥지원 (2012).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438-446.
- 전경숙, 노자은, 송효준, 최수현 (2020). **군포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군포: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 주영선, 정익중 (2019).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청소년연구**, 30(4), 33-62. doi:10.14816/sky.2019.30.4.33
- 지승희, 이은경, 이지은, 최수미, 정찬석 (2001).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중단연구 I: 청소년 비행 보호요소/위험요소 척도 타당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천정웅 (2017). 위기청소년정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 비판적 관점. **시민청소년학연구**, 8, 1-26.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청소년, 보호자 체감도 조사 및 대응방안. **청소년상담이슈페이퍼**, 2, 1-14.
- 한상철 (2016).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적응유연성에 대한 보호요인의 완충 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3, 69-90.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순길, 김동민, 김화연 (2015). **청소년위기실태조사: 1차년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여정, 이정민, 김수혜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 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nett, J. J. (2000).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Prentice-Hall, Inc.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Publications, London.
- Evans, P. (2005). Community-based Approaches and Cross-sectoral Partnerships for Youths at Risk in OECD Countries. *2005 International Symposium*, 3-16.

- Garn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4, 213-233.
- Garnezy, N. (1990). A closing note: Reflections on the future. In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ü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527-5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CBO9780511752872.030
- Horowitz, F. D. (1987). *Exploring developmental theories: Toward a structural/behavioral model of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Krueger, R. A., & Casey, M. A. (2009). *Focus Group: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4t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Pollard, J. A., Hawkins, J. D., and Arthur, M. W.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 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8), 145-158. doi:10.1093/swr/23.3.145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a support plan for youth at-risk as perceived by field experts during the COVID-19 crisis: Focused on Gunpo city

Chang, Yook* · Cho, M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upport plan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youth at-risk for field experts who provide support services and counseling to youth at-risk during the COVID-19. Six field experts who are conducting youth protection services and counseling in Gunpo city were selected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on October 27, 2020. The interview questions took the form of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derived through discussion among the researchers. As a result of extracting and analyzing the central concepts by searching for meaningful phrases or sentences, 4 components, 9 sub-components, and 11 meaning units were derived. First, 'the deepening of the youth at-risk found in the changed environment' showed the youth who were sick and tired, the youth who did not know what to do, and the parent-child conflict that got worse due to COVID-19. Second, 'practical help needed in the COVID-19 situation' was support related to online learning at home without my room, as well as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Third, 'support for self-reliance necessary to overcome economic crisis and family disintegrations' was found to be prepared for a career in the face of crisis and to find myself through separation from the original family. Fourth, 'collaboration and support of experts to respond appropriately' refers to cooperation and support for the field experts and teachers, and to gather together and cooperate to support youth.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were presented on support plans for vulnerable families, support for youth support councils, and way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private organiz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practical support plan that can help youth at-risk in the COVID-19 situation.

Key Words: youth at-risk, COVID-19, field expert, qualitative study

투고일: 2021. 5. 25, 심사일: 2021. 7. 23, 심사완료일: 2021. 8. 10

* Kwangwoon University

** Myongji College